

크스님 수행한담

“계율 지키는 삶”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내가 처음 절에 들어간 것은 사실 출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정양차 갔던 것이지요. 고향인 영 일과 가까운 보경사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 때가 15살 때쯤 되었을 겁니다. 한 1년 정도 요양을 했을까요. 스님께 부 처님 말씀도 듣고 부처님을 아침 저녁로 뵈다보니 불교에 귀의해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아픈 몸도 나았구요. 그 때 마침 해 인사에서 온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을 따 라 해인사로 갔지요. 16살 때 계를 받았 습니다. 그리고 강원에서 7년 가까이 공 부를 했지요.

기르 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 폭포에서 뿜어나오는 수증기며 바닷바람 에 실려오는 습기에 몸이 버티지질 못하 겠더라고요. 도저히 공부가 안되는 겁니 다. 나오려고 하니 이곳에 들어올 때 경찰이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다행히 매 일매일 검문 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찰이 안나온 틈을 타서 주문진으로 나왔는데 6.25가 터졌지 뭐니까. 잠깐 놀라서 얼른 보경사로 돌아갔지요. 전쟁 중에는 보경사 서암에 있었습니 다. 추석이 가까워오던 무렵의 일인데 서 암에 있다가 저녁 때 큰 절로 건너가던 중이었어요. 눈두렁으로 사람들이 10여명 가량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인천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인민군이 한참 퇴각 하던 무렵이었어요. 달밤인데 “동무”라고 부르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 약력
- 1932년 경북 영일 생
-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57년 해인사 대교과 졸업
- 1968년 동국학원 이사
- 1976년 동국대 철학박사
- 1986년 동국대 제11대 총장역임
- 현 동국대 명예교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저서: <능엄경 약해> <한국불교소의경 전연구> <해인사지> <교감역주 역대교 승비문> 신라·고려·조선편 외 다수

법화경 관음보살보문품 범망경 10중대계 48경계 화엄경 보현행원품 마음에 새기길

그저 인민군인 줄 알았지요. 그 때 끌려 갔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때마침 머리가 아파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 습니다. 그래서 염병걸려서 큰 절에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고 둘러댔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전쟁이 끝나고 해인사에서 대교과를 마칠 수 있었고 통도사로 가서 2년동안 있었습니 다. 당시 주지스님이 월 하스님이었어요. 나는 월운스님과 같이 공부했지요. 운허스님 밑에서 말입니다. 은사는 자운스님이지만 운허스님과 영암 스님은 은사같은 분들이었지요. 은사이신 자운스님을 임직하실 때까지 수십년간 모시고 있었는데, 을사이시기에 다들 참 엄격하고 어렵다고들 말했는데 우리 는 그런 것 못 느꼈어요. 아난도 별로 안 맞았는 걸요. 스님은 항상 율종이 진작돼 야 스님들의 행동이 바로 선다고 말씀하 셧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해도 계율 을 바로 잡지 않아 행동이 개차반이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 “양심을 속이는 중들은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신도들이기에 혹세무민하기 쉽다는 것이었지요. 부처님 말씀에 ‘계율이 있는 곳엔 불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경해 삼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경이나 지해 보다 계가 앞서 있지요. 복전장경은 경을 쓴 삼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대승이라 그런지 경부터 시작하지요. 하지만 남전 장경은 율종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경 과 논이 있습니다. 대승적인 것도 좋으나 너무 지나치면 안되지요. 우리나라에는 율사로 이어지는 계맥이 없었어요. 신라시대에 대표적인 자장율사 와 진표율사가 있지만 고려 조선조엔 율사가 별로 없습니다. 조선조에 대은율사 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하동 칠불암 부처 님께 기도를 드려 계맥을 인정받았어요. 부처님 앞에 향을 쬐고 율사로 인정하시 면 향에 불을 붙여 달라고 기도를 한 거 죠. 10여일을 기도해 향에 불이 붙음으로 써 부처님께 직접 인정받은 율사였어요. 이런 정도로 맥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 율사입니다. 은사스님은 불교정화 전부터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㉞

但以空寂爲自體 勿認色身
단이공적위자체 물인색신
以靈知爲自心 勿認妄念 妄念若起
이영지위자심 물인망념 망념약기
都不離之則臨命終時 自然業不能繫
도불수지즉임명종시 자연업불능계
雖有中陰 所向自由 天上人間
수유중음 소향자유 천상인간
隨意寄託 此即眞心 身後所住者也

수의기탁 차즉진심 신후소왕자야

만약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 을 모두 따르지 않는다면 목숨을 마칠 때에 자연히 업에 매이지 않을 것이 다. 비록 중음신(中陰神)으로 있다 해 도 향하는 곳이 자유로워서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마음대로 의탁한다 했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몸을 버린 뒤에 가는 진심이니라.”

수심결(修心訣) ①

三界熱惱 猶如火宅 其忍淹留
삼계열뇌 유여화택 기인염류
甘受長苦 欲免輪迴 莫若求佛
감수장고 욕면윤회 막약구불
若欲求佛 佛即是心 心可速覺
약욕구불 불즉시심 심하민력
不離身中 色身是假 有生有滅
불리신중 색신시가 유생유멸
眞心如空 不斷不變 故云百骸潰散
眞心如空 不斷不變 故云百骸潰散
진심여공 부단불변 고운백해괴멸
歸火歸風 一物長靈 盡天蓋地
귀화귀풍 일물장령 개천개지

고골출수 자철사경 장좌불와
一食即齋 乃至轉讀一大藏教
일식즉재 내지전독일대장교
修種種善行 如蒸沙作飯
수종종고행 여증사작반
只益自勞爾 但識自心 恒沙法門
지익자로이 단식자심 항상법문
無量妙義 不求而得
무량묘의 불구이득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미혹된 자가 오래되어 자기 마음이 참부처인줄 알 지 못하고, 자기의 성품이 참진리인줄 알지 못해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면 멀 리 성인들만 추앙하고 부처를 찾곤하 며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관조(觀照)하 지 않는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

삼계(三界:욕계·색계·무색계)를 운회하는 고통은 마치 불난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오랜 고통을 받으려 하는가. 그 운회를

윤회 고통은 마치 불난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러 있는가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만약 부처를 찾으려면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바로 이 몸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몸은 무상하여 나 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이 진심(眞心)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는 죽으면 흩어져 불이나 바람의 자연으 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마음)은 영원 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하 였다.

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뜻에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동안 몸을 불 사르고 팔을 대우고, 온갖 부수어 골 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베껴며, 놓지 않고 오래 앉아 참선만 하며, 아 침 한 끼만 먹으며 나아가 모든 대장 경을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해 도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수고로운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알면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찾지 않아도 절 로 얻게 될 것이다.

嗟夫今之人 迷來久矣
차부금지인 미래구矣
不識自心是眞佛 不識自性是眞法
불식자심시진불 불식자성은진법
欲求法而遠推諸聖 欲求佛而不觀己心
욕구법어원추제성 욕구불이불관기심
若言心外有佛 性外有法 堅執此情
약간심외유불 성외유법 견집차정
欲求佛道者 縱經塵劫 燒身燃臂
욕구불도자 종경진겁 소신연비
敲骨出髓 刺血寫經 長坐不臥

수심결
수심결은 수행인물뿐만 아니라 일반 세인들에게도 널리 율하여야 할 마음 뒤는 길의 지름길이다. 인인이 누려야 할 행복은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이 해방의 길은 의무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구명하 게 기르쳐주는 지점서이다. 마음은 바로 자신의 초소이다. 여기에 절을 짓고 동물을 내걸지 않는다면 고통의 그늘지는 사라질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

김원익(시인·역경위원)

도서 열린마음 열린서상 전화 (051)627-5498 출판 열린마음 열린서상 팩스 (051)623-3946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지장사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 천당 보내고 못하면 벌을 주어 지옥 보내는 극단의 사상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제도되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자신의 성불도 포기하겠다는 구제사상 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요, 신앙입니다.

지장사상과 지장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으로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찬술/석용산 스님 · 율음/석효선 스님

이 책에 실려있는 ‘지장출부경’, ‘지장왕보살지혜심경’, ‘지장경약한계’ 등은 스님께서 직접 찬술하셨으며, ‘지장예참’, ‘지장왕보살예찬문’ 등은 한글로 번역하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 나게 독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 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 여보게 저승갈 때 뭐가지고 가지
③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 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 친구하자, 친구하자

이 책들은 그 동안 스님께서 발표하신 글들 중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아 작은 책자로 다시 엮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진정한 자비실천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지장기도법회

- 지장예참기도 ▶ 음력 매월 초하루(부산, 대구포교원) 오전 11시
●지장천도기도 ▶ 음력 매월 14일(부산), 18일(대구) 오전 11시
●지장예찬기도 ▶ 매주 수요일(부산), 금요일(대구) 오전 11시